

“영원처럼 멀고도 가까운 곳의 죽음들”

호국의 달 6월에 읽는 戰爭詩篇

윤호병

문학평론가·육사 교수

일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3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사랑과 신앙과 죽음일 것이다. 그러나 누구나 사랑을 하다가 헤어질 수도 있고 독실한 신앙인이다가 무신론자가 될 수도 있지만 죽음만큼은 경험삼아 체험해 볼만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왜냐하면 죽음을 경험한다는 것은 곧 처음이자 마지막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은 그만큼 불가항력적인 공포의 대상이 된다. 더구나

그러한 죽음이 生老病死에 의한 자연적인 죽음이 아닌 인위적인 죽음일 때, 우리가 겪게 되는 두려움과 고통은 어떻게 형언할 수 없을 것이다. 죽음을 전제로 하는 군인과 전쟁에서의 죽음—그것은 일상적인 의미의 직업이라든가 죽음과는 다른 의미를 지닌다고

본다. 특히 전쟁에서 군인이 맞이하게 되는 예측불가능한 죽음은 언제나 그들 가까이 常存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죽음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군인의 운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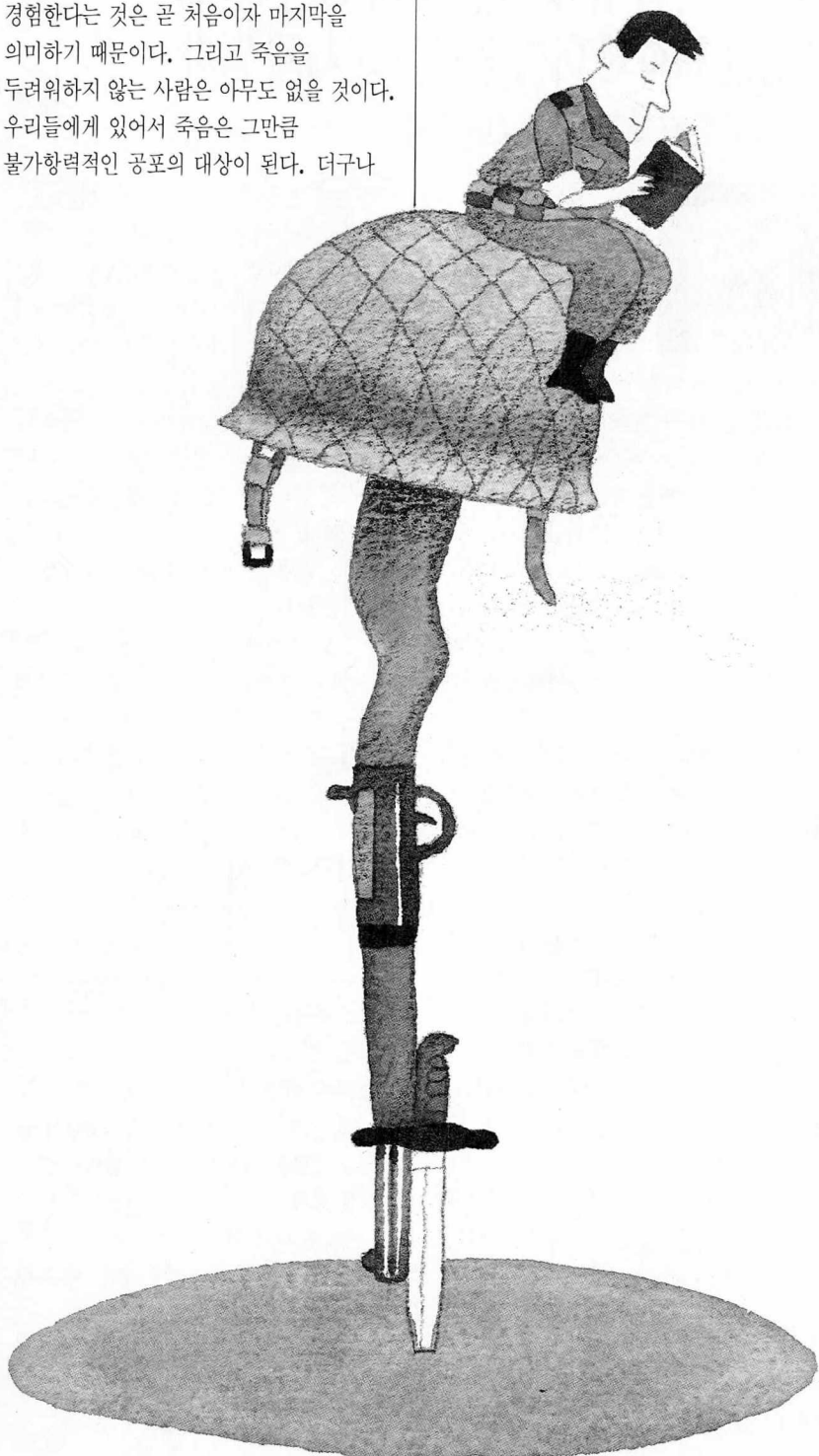
죽음을 마다않고 군인이 되었던 사람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쟁에서 싸웠던 사람들, 의연한 자세로 죽음을 맞이하였던 사람들을 더욱 생각나게 하는 6월... 앞다투어 피어나던 그 화려한 꽃들과 숨겨놓았던 힘을 모아 일제히 돌아나던 신록을 밀어내면서 높게 열리는 하늘과 따가운 햇살을 앞세우고 6월은 그렇게 첫여름을 알리며 우리에게 다가온다. 이런 6월에 크게는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작게는 개인과 가족을 위해서, 이름없는 계곡과 이름모를 강가에서 단하나뿐인 귀한 목숨을 초개같이 던져버렸을 용사들을 생각하면서 生死를 가늠하기 힘든 전쟁중에 쓰여진 詩篇을 읽노라면 극한상황에서 시를 썼던 사람들의 섬세한 감수성에 놀라게 되고, 시로 형상화된 군인들의 고귀한 죽음에 스스로 부끄러워지고는 한다. 죽어 사라진 이들이 선택한 값진 죽음—그것은 아마도 조건없는 ‘애국심’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었을까.

러셀은 「인류는 왜 싸우는가」에서 애국심을 이렇게 설명하였다. “애국심은 원초적 본능과 고도의 지적인 확신에 의해서 형성된 아주 복잡한 감정이다. 애국심에는 적의 침략으로부터 내 나라를 수호해야겠다는 강렬한 열망을 불러 일으키는 가정과 가족과 친구에 대한 사랑이 깃들어 있다. 애국심에는 이방인에 대한 사랑보다는 동포에 대한 본능적인 사랑이 깃들어 있다. 애국심에는 우리가 소속된 공동체의 성공적인 역할에 대한 자부심이 있다. 애국심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지닌 우리 조국이 모든 인류가 지향하고자 하는 이상향이라는 점을 확신시켜 준다. 그 외에도 애국심에는 더 고귀하고 더 값진 숭고한 정신, 혼쾌한 희생, 위기에 처한 조국을 위해서 개인의 생명을 기꺼이 바칠 수 있는 존엄한 정신이 깃들어 있다. 애국심에 나타나는 신앙에 가까운 이러한 정신은 국력신장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필수요소이다. 왜냐하면 애국심에는 조국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용기있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훌륭한

희생정신이 깃들어 있기 때문이다.”

두려움 없이 기꺼이 죽음을 선택하게 하는 애국심은 자기확신과 자신감에서 비롯된다. 무슨 일을 하든지간에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어설피게 마무리짓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철저히하고 완벽하게, 성실하고 정직하게, 세련되고 재치있게, 그러면서도 되도록이면 능수능란하게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끝마치고자 할 것이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성취욕과 능수능란한 태도는 자신감에 관계되며, 자신감은 무수하고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진다. 그러나 우리들의 일상생활은 아주 제한된 것이어서 그 많은 경험을 직접 체험하기에는 언제나 역부족이기 때문에 간접체험에 의존하게 마련이고 그런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책읽기’라고 생각한다. 하고 있는 일이 불확실할 때, 명쾌한 해답을 얻지 못할 때, 어느 한 가지를 선택 선택하지 못할 때, 어떤 까닭을 분명하게 설명하지 못할 때, 자신의 견해를 설득력있게 피력하지 못할 때, 그때마다 책을 마주하게 된다면 우리는 확실하고 명쾌하고 결정적이고 분명하며 설득력있는 방법을 터득하게 될 것이다. 책 속에는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진리가 누군가에 의해서 발견되기를 기다리며 이름답게 숨겨져 있다. 숨겨진 진리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기쁨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에게 용기와 신념과 확신을 주는 것은 물론 미래에 대한 튼튼한 설계를 가능하게 해 준다.

우리를 감동시키는 숨겨진 진리의 아름다움—그것은 한꺼번에 피었다 지는 벚꽃의 과시도 아니고, 지나가는 이의 발걸음을 붙들어 주는 라일락의 진한 향기도 아니며, 떼지어 비상하는 새떼의 지저귐도 아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혼자서 피고 지는 풀꽃의 생명력파도 같고, 바닷바람에 실려오는 석곡의 한가닥 향기와도 같으며, 아무도 모르게 6월을 애도하는 작은 벌레의 울음소리와의도 같은 것이다. 풀꽃이나 석곡이나 작은 벌레와도 같이 책속에 숨겨져 있는 진리는 한눈에 들어오는 보석의 반짝임처럼 우리를 유혹하지는 않는다. 현란한 빛이나 아름다운 색깔, 힘겨운 무게나 거대한 부피도 없이 우리의 관심을 끄는 그런 진리가 소중한 까닭은 그것이 바로 가장



일러스트 레이션 / 노희성



진실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원동력을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물론 삶의 원동력을 제공해 주는 요소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이처럼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이 지니고 있는 그 소박한 진실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하고 또 미처 눈에 띄지 않던 것에 눈떠야 한다.

책을 읽음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시시한 것으로 일축해 버리는 것에 대해서 남다른 애정을 부여한다면, 그래서 잊고 있었던 것, 생각조차 못했던 것, 혹은 눈에 띄지는 했지만 미처 눈뜨지 못했던 것에 눈을 뜬다면, 우리는 자신의 주변을 신선한 충격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자신의 주변으로부터 받는 신선한 충격은 타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앞에 대한 의지'에 의해서 비롯되는 것이다. 앞에 대한 의지의 소멸, 그것은 곧 새로운 세계의 발견을 거부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미 얻은 지식을 확인하고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지식을 추구하고 습득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인류의 문화는 과거지향적이지 않거나 미래지향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발전해 왔고 현재부터 미래의 어느 한 순간—완결 불가능한 순간—까지 지속하게 될 인류 문화의 발전은 앞에 대한 의지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의지는 부단한 자기 계발을 위한 지적 호기심을 전제로 한다. 책을 가까이 하지 않음으로 해서 지적 호기심과 앞게 대한 의지를 스스로 거부한 생활은 '살아가는 생활'이 아니라 '죽어가는 생활'이나 다름없을 것이다.

군인들의 독서, 살아있음 확인하는 행위

살아있음을 확인하기 위한 책읽기의 당위성은 전후방 각지에서 국토방위에 여념이 없는 군인에게 더 절실한 행위라고 생각한다. 정적인 사고력보다는 동적인 과감한 행동을 요구받는 군인에게 있어서 책은 곧 이 두 요소를 융합하는 매개체가 된다. 개인의 이익보다는 집단의 권익을, 가정에 대한 애정보다는 조국에 대한 애국심을, 삶에 대한 애착보다는 의연한 죽음을 더 많이 강조받는

군인에게 있어서 책은 전자보다 후자를 어떻게 현명하게 선택하고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제시해주는 때문이다. 책을 읽고 있는 군인의 모습은 군인이라는 강한 이미지와 책이라는 유연한 이미지를 종합함으로써 한결 세련되고 자애롭고 지적이고 이해심있는 군인상을 만들어 낸다고 생각한다. 책을 읽음으로 해서 군인은 책속에 나타나는 타인의 죽음에 의해서 군인이면 응당 전제로 해야만 하는 죽음을 간접 경험하게 된다. 군인과 죽음의 문제—그것은 선택적인 것도 아니고 일시적인 것도 아니며 경험삼아 체험할 만한 것도 아니다. 그것은 필연적이고 숙명적인 것이다.

죽음과 군인, 군인과 전쟁, 전쟁과 문학이 가지는 복잡한 상관성을 시로 형상화한 한 권의 시집이 바로 1955년 6월 25일 국방부 정훈국에서 편찬한 「戰時 韓國 文學選: 詩篇」이다. 당시 국방부 정훈국장이었던 金宗文 장군이 「서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들 "시작품들은 전부가 한국전쟁을 치루는 동안에 쓰여진 것으로서 우리 민족의 고난에서 오는 내면적인 사고와 감정의 총화를 그대로 표출화한 작품들이며 자유와 반자유가 대결하는 광장인 한국전쟁을 보다 진지하게 재현시킨 우리의 문화적 유산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들 시편에는 언어적 기교나 현란한 수사나 없지만 전쟁의 박진감과 현장감, 감정의 진솔한 표출과 따뜻한 인간애, 적에 대한 증오와 전우에 대한 연민, 군인으로서의 의무행과 죽음에 대한 전율 등이 있는 그대로 표현되어 있다.

자유와 승리, 전쟁의 실상, 분단, 조국애, 동포애, 전우애, 죽음, 가족애, 향수, 가난, 순수 서정 등 총 11개 분야로 나눌 수 있는 이들 118편의 시편 중에서 죽음의 경우를 다룬 시편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쟁이 뺏어간 나의 親友는 어디서 만날 수 있습니까"라고 호소하는 박민환 시 「검은 神이며」, "淒絶한 戰野에서/너 죽어감/어느 少女가 記憶할 따름이다"라고 애도하는 박남수 시 「招魂의 노래」, "까마귀는 송장냄새를 잘 맡는다"고 분노하는 양명문 시 「달밤」, "너의 죽음에는/분명이 네가 죽어야 했다"라고 오열하는 신동집 시 「碑」 등을 들 수 있다. 전우의 죽은 얼굴을 보고 "바로/내 얼굴/다음의 내 얼굴아"라고 절규하는

박훈산 시 「戰死者의 뒤를 쫓아」의 全文은 다음과 같다. "먼저 祖國을 안은/너의 자랑/앞서간 너를/여기서 보노라면/바로/내 얼굴//다음의/내 얼굴아//잇발을 악물은/주검 위에서/永遠처럼/먼 곳에서/가까운 곳에서//나를 부르는 소리/자꾸/나를 오라고/부르는 소리."

'永遠처럼 멀고도 가까운 곳'에서 죽음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린다. 멀리 있을 때의 죽음은 자신과는 관계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죽어 넘어진 전우의 얼굴에서 우리는 죽음이 가까이 있음을 느끼게 된다. "먼저 祖國을 안은" 이 시속의 주인공처럼 얼마나 많은 병사들이 이름없이 숨겨졌을까?

삶에 대한 애착보다는 의연한 죽음을 더 많이 강조받는 군인에게 있어서 책읽기는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절실한 행위이다. 책읽기는 또한 군인에게 있어서 군인이면 응당 전제로 해야만 하는 죽음을 간접 경험하는 계기도 된다. 1955년 국방부에서 편찬한 「戰時 韓國 文學選: 詩篇」은 죽음과 군인의 상관성을 잘 보여준다.

한국전쟁 중에 씌어진 이들 詩篇을 읽고 있으면 그날의 절규와 분노, 열정과 충정, 사랑과 증오, 그리움과 슬픔이 한여름을 향하여 치닫는 6월의 하늘과 태양처럼 점점 더 강렬하게 메아리쳐 온다. 한 편의 시로 형상화된 이들의 값진 죽음을 간접체험함으로써 우리는 의연한 죽음이 어떠한 것인가를 인식하기도 한다.

이러한 역할을 전제로 하는 책은 그 소유자의 현황을 말없이 전달해 준다. 여기서 말하는 현황이란 책의 소유자의 직업이나 그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일이나 관심사항이나 개인적인 취향은 물론 그의 언어역량 등을 의미한다. 같은 군인이라도 지휘관의 서가에는 지휘관계 서적이, 참모의 서가에는 참모관계 서적이, 전략가의 서가에는 전략관계 서적이, 외교안보 전문가의 서가에는 그 분야에 대한 서적이

각각 대부분을 차지할 것이기 때문이다. "군인이 웬 국문학?" "국문학자가 웬 비교문학?" "웬 프랑스어와 라틴어?" 같이 나를 곤혹스럽게 하던 질문에 어리석게도 나는 꽤 많이 노여워하고 분노하고 분개하고는 했었다. 그러나 나를 둘러싸고 있는 정말 얼마 안되는 나의 책은 이제 이런 질문자들을 스스로 입다물어 버리게 하고는 한다. 이제 책은 나를 보호하는 방패막이자 나를 정당화시켜 주는 대변인의 역할을 한다.

책읽는 군인의 모습은 生死의 '만다라'

책을 읽고 있으면 모든 불안으로부터 해방된다. 사실 그 불안의 정체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을 때가 많지만 하여튼 나를 안달나게 하는 목마름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나의 입지가 남보다 부족한 것은 아닐까, 학문의 국제적인 흐름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닐까, 쓸데없이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은 아닐까, 스스로의 자만심과 독단에 빠져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등등의 우려에서 오는 불안을 떨쳐버리게 된다. 아울러 책을 읽고 있으면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다양한 상황과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말하자면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직접체험이 불가능한 죽음을 접해 보기도 하고, 한국전쟁에서 숨진 무명용사들을 만나 보기도 한다. 책은 언제나 우리를 깨어있게 하는 각성제로서의 역할을 한다. 더구나 그러한 책과의 만남이 6월에 이루어질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의미를 되새기게 되고 그 공동체를 수호하다 숨겨진 사람들의 송고한 넋을 기리게 된다.

책은 그것을 읽고 있는 사람을 아름답게 만든다. 책읽기의 아름다움—그것은 타인에게 내보이기 위한 외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스스로의 발전을 위한 내적인 아름다움이다. 더구나 자신의 업무와는 무관한 책을 읽는다는가, 수집한다는가, 이야기한다는 것은 스스로의 발전과 교양을 위해서 아름다운 일임에 틀림없다. 護國의 달 6월에 읽는 「戰時 韓國 文學選: 詩篇」은 우리에게 시로 승화된 군인들의 값진 죽음, 한국전쟁에서 숨진 사람들의 죽음의 의미를 절실하게 전해준다.